

“트래픽 유발, 사용료 내야” vs “기술혁신으로 망부하 줄여”

<SK브로드밴드>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법정공방

넷플릭스

“근본적 해답은 ‘기술혁신’에 있어 오픈커넥트 통해 트래픽 양 줄여”

SK브로드밴드

“국내 ISP 전용회선·설비 이용 이용대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

글로벌 온라인동영사업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법원에서 또 다시 맞붙었다.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인터넷사업자(ISP)와 콘텐츠 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와 같은 ISP 사업자들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붙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는 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사 간 다툼은 2019년으로 거슬러간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해 자사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정(중재) 신청을 했다. 이는 국내 ISP가 CP와의 망 이용대가 협상에서 중재를 요청한 첫 사례다.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양사의 분쟁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지난해 4월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방통위 재정이 불리해지자 갑작스레

소송을 제기해서 방통위 재정을 중단시켰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의 성장과 연관됐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트래픽이 폭증해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ISP 측의 주장이다. 실제 넷플릭스를 포함한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 3사의 일 평균 합산 트래픽은 국내 전체 트래픽의 3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전 세계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는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 망 종립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전 세계 ISP들과 협력해 무상으로 오픈 커넥트(OCA)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미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 커넥트란, 넷플릭스 콘텐츠를 담은 카탈로그를 소비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전달, 저

장하는 방식이다.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망 이용 대가만이 트래픽 증기를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보다 근본적 해답은 기술 혁신에 있다”며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트래픽의 양을 줄이고 망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네트워크 기술혁신은 세대 진화를 거쳐 대규모 투자를 하며 ISP들이 해왔던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OCA는 콘텐츠



SK 남산빌딩

전송네트워크(CDN)를 내재화한 범용 기술이고, CND 사업자들은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의 ‘키’ 중 하나는 ‘전송료’라는 개념이다. 넷플릭스는 네트워크 ‘접속(access)’과 ‘사용(usage)’, 전송(delivery)’을 구분해 “누구든 인터넷 접속을 위한 대가를 내면 네트워크 내 사용이나 전송 대가는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직접 접속한 ISP에 대해서만 ‘전송료’가 아닌 ‘접속료’를 내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연결 이든 접속이든 국내·ISP의 전용회선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모든 이용자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서비스에 가입하고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1심 선고는 내달 25일로 예정됐다.

/김나인 기자 sllkni@metroseoul.co.kr

‘코인 빚투’에… 가계대출 잔액 다시 확대

5대 시중은행 대출잔액 총 691조 개인신용대출 전월比 6.8조 증가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잔액이다시 불어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지만 빚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코인 빚투’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될 방침이어서 상대적으로 연소득이 낮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규제 도입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도 확대될 전망이다.

◆코인얼통에 신용대출 6조8000억원↑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00조862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42조2278억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3조8738억원이다.

특히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42조2278억원으로 전달 135조3877억원 대비 6조8401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이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면서 2월에는 556억원이 줄고, 3월에는 2034억원이 증가해 관리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한 달새 전달 증가액 대비 30배가량 불어났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일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중은행 2곳에서 각 2000억원씩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최근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하는 이들도 늘고 있어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온·오프라인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홍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몰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 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이인TV 방송국 소유 햐터그룹
(주)햇터라이프 T. 070-7204-4515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

“불가리스 사태 책임” 자진사퇴

“연구의 한계점 명확히 전달 못해 오해·논란 야기… 너무 안타까워”

남양유업의 이광범 대표가 최근 남양유업에 불어닥친 ‘불가리스 코로나 효과’ 발표 역풍에 대한 책임을지고 물러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는 3일 오전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해당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며 자진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번 불가리스 사태 초기부터 사퇴의지를 표명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단체 메일로 송부한 글에서 “최근 불가리스 보도와 관련해 참담한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최선을 다하는 직원과 대리점 등 남양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며 “모든 책임은 제가지고 절차에 따라 물려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유의미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해 오해와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억측과 비난으로 여러 사람이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에 관해 “(이 대표가) 사임의 뜻을 밝혔고 신임 대표 임명이나 대표 자리 공석 예정 등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 사퇴 의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달되고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9년에 남양유업 대표로 취임했으며 적자 해소 및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선 인물 중 하나이다. 이 대표를 주축으로 남양유업은 사내 10개팀 인원으로 구성한 ‘ESG 추진 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우유업계 최초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

/남양유업

로 도입,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나누는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초에는 글로벌비데이터연구소 기준 국내 주요 식품회사 대표들 중 ‘사회공헌’과 ‘ESG 경영’ 키워드의 포스팅 수가 가장 많은 이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 조치하고, 서울경찰청은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실책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마케팅총괄본부장을 맡았던 남양유업 흥원식 회장의 장남 흥진석 상무도 불가리스 사태와 회삿돈 유용 논란으로 지난달 사임한 바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13일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발표 후 거센 비난에 처했다. 당시 불가리스를 공동개발한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항바이러스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했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은 국내 최초로 소재 중심이 아닌 완제품 형태로 항바이러스효과를 규명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동물·인체가 아닌 세포 실험 결과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발표했다는 논란이 커졌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